

가진 것 베풀고 부족한 점 채우는 상생 교류

국제 불교교류 물길 바뀐다

“지구촌시대”로 통한 지 오래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로 표현될 만큼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중심에 교류가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한국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불교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1960년대부터 중단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불교의 국제 교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외형과 선언적 의미가 강했던 예전의 교류와는 달리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무계중심도 중단에서 단위사찰이나 불교단체로 이동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베풀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배워오는 형태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배우는 교류’로 방향 전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립)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사찰과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혼보쿠지(本福寺), 카즈오지(勝尾寺), 나리타지(成田寺),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신소지(新勝寺), 다마레이엔(多磨霊園), 신고베 히브가든 등을 둘러본 이 견학은 실천불교승가회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찰 경영에 관한 연구’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일본 견학을 통해 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고 신도중심의 공간운영,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불사 추진 등 일본 사찰의 특징을 배운 점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일본사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측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불교승가회 견학단으로 참가했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토진 스님(수국사 주지)에게 일본 견학은 감동을 풀어준 경험이었다. 단순히 사찰과 성지를 순례한 이전의 외국행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뿌듯함이었다.

토진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사찰을 운영해야 하는 스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같은 기간 타이완 카오슝 불광산사를 방문했다. 지난해 일본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에 이은 두 번째, 불광산사의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하고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자리였다.

두 번의 체험에서 주목할 점은 참가자 수다. 일본사찰 체험 당시 참가자는 38명이었지만, 이번 타이완 불광산사 체험은 68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험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는 당시 참가자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성호 스님은 “우리나라 사찰들이 갖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노하우도 불광산사측에 전하기 위해 그들을 초청해 놓은 상태”라며 “서모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가진다면 상생의 교류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 형식보다 내용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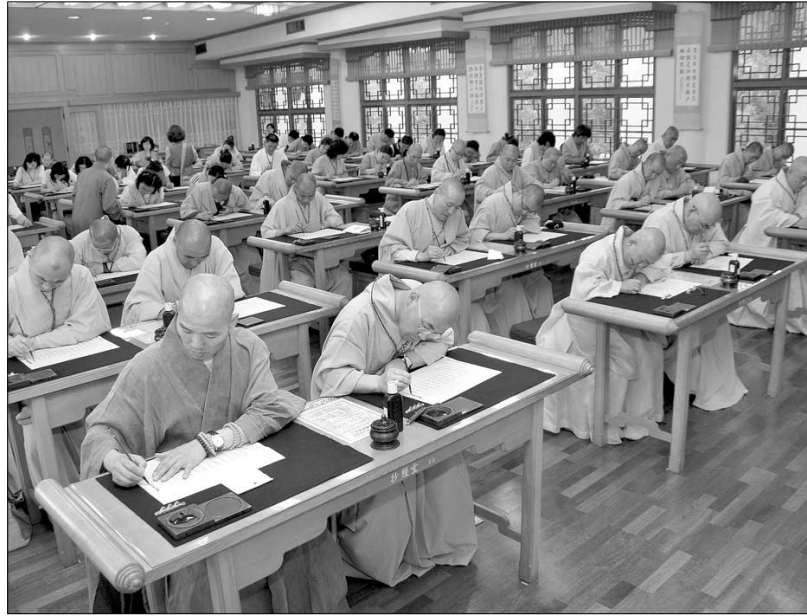
현재 한국불교의 국제교류는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세계불교도우의회, 세계불교도연

“하나라도 배워오겠다” 교류목적 뚜렷해져 일본 사찰경영 노하우 체험... 만족도 높아 교류주체, 종단서 사찰·단체로 중심 이동

맹 등 그동안의 교류가 종단이 주도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 단위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형식 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세계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성과는 적으면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교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작으면서도 효과 있는’ 교류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서 흘러나오는 자성론이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문 스님(파주 보



지난 5월 타이완 불광산사에서 사경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광사 주지)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나치게 외형적이고 소모적인 경향이 강했다”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작은 규모의 교류 중에서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남방불교에 대

리의 지나친 경쟁이 문제를 양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거나, 큰 그림을 갖고 교류를 가지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사찰간 교류를 위한 교육과 안내,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류센터’를 종단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JTS 봉사자들이 지난해 1월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 타밀주에 긴급피견대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회 JTS

고, JGO는 스리랑카와 네팔에 직업훈련센터와 유치원, 의료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도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몽골 등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직업훈련센터 등을 건립하거나 공동우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가 양쪽에 이익을 주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선남선녀 인연 맺어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상사는 베트남 분원 건립과 ‘선남선녀 만남’을 확대해 한국 총각과 베트남 처녀를 맺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흥계획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사는, 베트남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NGO 활동으로 방향을 바꿨다.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매매가 아닌 올바른 결혼문화를 세우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대상사는 지난 3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상담소를 개설하고 2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여성상담소는 여성인권과 결혼, 신행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활동을 벌여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결국 대상사는 베트남과의 교류로 ‘선남선녀 인연 맺어주기’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성인권 보호와 함께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성과를 거두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불교권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빈민 구제와 교육을 앞세워 진출한 기독교국가들의 문화 말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사찰간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교류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해당국가에 직접 진출해 교육·육아사업을 벌이는 교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NGO, 불교권 개도국서 구호활동 적극 전개 교육·의료 지원사업 현지인들의 큰 호응 얻어 퍼주기식 지원·과열경쟁 등 일부 부작용도

◇ 불교 NGO 제3세계 구호 ‘모범’

제3세계에 대한 구호활동과 개발도상국 가운데 불교권국가에 대한 후원활동은 국제교류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다.

한국JTS가 인도에 개원한 초등학교 수자타아카데미를 시작으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지구촌공생회, JGO,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들이 제3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구호활동은 이제 교류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해외로 진출한 JTS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재난지역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네팔과 캄보디아에 각각 직업훈련센터 비하니바스티(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와 유치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해외 사찰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사찰들에게 본받아야 할 해외 진출 모델로 꼽힌다.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선양하면서도 포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새로운 교류방식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셈이다.

불모지와 다름없는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육천대성사주지 해철의 교류 방식은 눈여겨볼만하다. 베트남과의 교류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최근 들어 제방 스님들께서 입종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종자격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사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포교당을 개원했거나 개설 하실 분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이력서 3. 본 종단 입종 원서 4. 반명함판 사진 3매 (칼라). 사찰전경사진
문의	☎ 031)285-5102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우담 합장

주소 : 총무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62-4번지

분한신고 공고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은 종단소속 각 사,암 승려 및 포교사에 대하여 분한 신고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원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 2. 신고서류 : 분한신고서, 반명함판 3매, 이력서, 사찰전경사진
- 3. 비 용 : 3만원 (승려증 갱신)
- 4. 신고방법 : 총무원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공고에 있는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람)
- 5. 문 의 : ☎ 031)285-5102

(단, 협조 회신문을 보내 주신 스님은 별도의 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진구매와 신고비 3만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분한신고 미등록시 (2006년 7월 30일까지) 자동 제적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6월 28일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우담 합장